

코로나19에 '마스크' 만드는 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아요"

LA 백송교회 김성식 목사 "교회가 무엇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마스크 제작 시작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남가주 대부분의 교회가 모임을 중단하고 문을 닫은 평일 오후, LA 한인 타운에 소재한 LA백송교회(담임 김성식 목사)는 어느 때 보다 분주하다. 마스크 제작이 한창인 LA백송교회를 찾았다.

여유 공간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들은 본당 설교 강단 앞에 탁자를 이어 붙여 작업대를 만들었다. 작업대 한편에서는 원단에 마스크 원형을 그리고 자르는 일에 여념이 없다. 마스크 형태로 재단된 원단에 필터를 넣고 사용자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밴드와 와이어 등을 삽입해 미싱질로 꼼꼼하게 마감하면 마스크가 완성된다.

간단한 작업인 것 같지만 제작에는 손이 많이 필요하다. '1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 10명을 넘지 않는 인원이 모여 100% 수작업으로 공정이 이뤄지다 보니 10명이 호흡을 맞춰 하루 12시간을 작업해도 제작수량은 하루 100여 장을 넘기 어렵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작업이지만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다림을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 없었다. 김성식 목사도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보낼 코로나 돌파하기 5분 메시지를 녹화하고 나서는 마스크 제작에 동참한다. 마스크를 300개 이상 만들어서 인지 필터를 재단하는 김 목사의 손놀림이 빠르고 섬세하다.

미주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마스크 제작에 나선 LA 백송교회 김성식 목사는 "지난 2월 경, 본국 대구에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당시, 마스크를 구하지 못



마스크를 제작하던 LA백송교회 성도들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라는 올해 교회 표어 앞에 섰다.

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던 중 인천백송교회(담임 이순희 목사)의 마스크 섬김 사역에 공감하고 마스크 제작을 시작하게 됐다"고 제작 동기를 설명했다.

마스크제작과 기부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자 백송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LA 자바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성도는 가지고 있던 원단을 헌물했다.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교인과 쉐드 전문가는 미싱을 잡고 마스크 제작 진두지휘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비즈니스가 중단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 마스크 제작에 힘을 보탤다.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원단 수급이 어려움에 처하자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감을 내놓는 성도들도 늘었다.

2018년 2월 LA 한인타운에서 시작한 백송교회는 개척된 지 만 2년, 성도수 40여 명에 불과한 소위 말하는 작은교회지만 모두가 힘을 모으자 여느 대형교회도 시도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

김성식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많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교인들도 영상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서 주신 달란트(재능)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스크 제작에 가장 큰 어려움을 원단과 필터 수급으로 꼽으며 "혹 마스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면 원단과 필터를 후원해 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백송교회는 현재까지 마스크 300여 장을 미주 지역 교회와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인들에게 무료로 전달했으며,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마스크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 제작된 마스크는 지역 섬김을 위해 쓰이도록 영사관이나 공신력 있는 한인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LA백송교회 주소 : 3251 W 6th St b1, Los Angeles, CA 90020
 전화 : 213) 245-6616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故 손인식 목사님 북한 자유화와 한반도 복음 통일, 당신의 꿈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지성과 영성, 덕을 겸비한 신실한 목회자였다



박희민 목사(그날까지선교연합 공동대표, 나성영락교회 원로)

우리가 사랑하며 존경하던 손인식 목사께서 소천하셔서 먼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환송하는 사모님과 자녀들, 유가족들. 그리고 베델교회 성도들과 고인을 사랑하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죽음 앞에서 드릴 위로의 말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와 영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우리 인생을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비범하고 위대하게 살려면 죽음을 바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죽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죽음마저 조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참되고 진실하며, 사랑

이 충만하고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잇대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손 목사님은 베델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미주 최대의 한인교회의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은퇴 후에도 UTD/KCC를 통해 탈북자를 섬기며, 북한동포의 자유와 해방 및 복음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통곡기도회 사역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이상 사귀고 이민교회와 UTD/KCC를 함께 섬기면서 발견한 것은 손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과 덕성을 겸비한 신실한 목회자이며,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종이며,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과 상처 받은 심령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긴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믿음과 섬김의 종으로서의 리더십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와 사역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그가 보여준 인격, 믿음의 삶, 사랑의 실천 복음 증거와 선교를 위한 열정은 우리의 가슴속에 가장 값진 유산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모님과 자녀들과 유가족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서는 탈북자들의 형이요, 오빠요, 대부셨습니다



송정명 목사(그날까지 연합 선교회 공동대표, 미주 성서화 운동 공동대표, 미주평안교회 원로)

목사님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 그리 빨리 가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3월 26일 제 꿈에 찾아오셔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웃으면서 인사하신 것인가요. 차라리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질없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동역을 해온 기간이 20여 년 간이 되네요 그동안 보아왔던 목사님은 남을 칭찬 해주고 세워주는 일이 몸에 배어 있는 신실함과 겸손함이 겸비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비전과 추진력이 대단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 람이셨습니다.

오늘의 베델 한인교회가 이민 한인교회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의 눈물과 땀과 몸부림의 열매였다'는 사실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찢기면서 짐승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은 언제부터 가지셨습니까? 목사님은 탈북자들의 형이요, 오빠요, 대부였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싸매주고 몸부림을 쳐왔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탈북자들이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오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통곡하며 기도 해왔던 일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미주 땅 구석 구석을 누비고 한국 땅 방방곡곡을 찾아다니고 멀리는 구라과까지 찾아가서 잠들어 있던 목회자들을 흔

들어 깨우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통곡 기도회를 이끌어 나가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동행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가슴이 싸 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LA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 앨버타지역, 워싱턴 DC, 한국의 여러 지역 멀리는 동독 땅 라이프치히 지방까지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많은 통곡 기도회 가운데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렸던 그 기도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도 1월 31일부터 4-5일간 계속된 기도회 같습니다. 그 당시 구라과 지역에는 영하 16-17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400여 명이 넘는 봉사자가 나왔다고 마스크가 대서특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가 동서독 간의 통일을 이루어 낸 기도의 요람이었던 것을 안 이후에 목사님이 먼저 답사를 하고 교섭을 해서 기도회를 열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에 알았습니다. 구라과 지역과 한국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50여 명과 베델 교회 교인들 20여 명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인 새벽 기도회는 미끄러운 얼음판을 조심조심 걸어가서 모였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분당에서 뜨겁게 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도 지금 기억됩니다. 아침 식사를 끝낸 일행들은 손에 손에 "Freedom for North Korea"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도 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 가서도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는 말에 얼어붙어 있는 아스팔트 길에 엎겨 주춤 무릎을 꿇고 30여 분간 정지법 수용소를 철폐하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옷술이 털털 떨어지는데도 목사님은 성명서를 큰 소리로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독일 경찰들이 우리 시위대를 앞뒤에서 호위해 준 일입니다. 전 이런 현장을 오랫동안 기억해두고 싶어 제가 쓴 책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귀한 일들을 남겨 두고 목사님이 먼저 가시면 누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지난 10월 31일 목사님이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신 후에 목사님이 계시던 병원을 몇 차례 찾아봤는데 그때마다 눈을 감고 계시고 대화가 되지 않아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에 찾아뵈면서 목사님의 이름을 몇 차례 불렀더니 실낱같은 눈을 뜨시길래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습니다. 얼른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가슴에 오랫동안 남겨 두고 싶은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미주 복음 방송국에서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던 칼럼 방송도 제가 대신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까지 1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의 고백 같이 선한 싸움 잘 싸우셨습니다. 달려갈 길도 잘 달려가셨습니다. 믿음도 잘 지켰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손 목사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품에 안고 등을 두들겨주고 계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면류관도 받으셨죠? 아쉬운 것이 있다면 목사님을 마지막 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 시간에 수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독에서 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요,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평행한 역사지의 울림이다.

▶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교구(장신대 명예교수) 권준목사(예수전도단), 송정명목사(복음선도 공동대표), 권준목사(종필리미주대표), 신성민목사(동일선도 대표), 유관지목사(동일선도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이제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 배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 기독교 동산(GI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관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 비영리단체등록
- ▶ 특허
-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진흙땀에 1년간 숙성시킨 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연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연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연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특수 천연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판 매 처

Space Eum Cafe 213.386.3896
3020 Wilshire Blvd. #100 213.605.2772
Los Angeles, CA 90010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שמ미네랄 천연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인격과 믿음의 삶
사랑의 실천과 복음 증거
선교를 위한 열정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고 손인식 목사님의 꿈을 가슴에 새기고 달려갑시다!



김인식 목사 (그날까지 선교연합 공동대표, 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

1990년 40대 초반의 한 목사가 동부에서 서부 앨버틴으로 옵니다. 그동안 서로의 상처로 침체 속에 있던 앨버틴 베델교회가 치유되며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깊은 감동을 주는 복음 메시지에 많은 탕자들이 돌아옵니다. 감성을 터치하며 삶의 변화를 주는 메시지는 테이블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손인식 목사를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베델교회는 양적 성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베델교회는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동족 구원을 위한 제사장 교회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교회성장 실험교실을 통해 많은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비전을 나눕니다. 손인식 목사는 이민 목회자의 어려움을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화시킨 승리의 길을 보여주며 많은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도전케하는 멘토였습니다.

1990년 40대 초반의 한 목사가 동부에서 서부 앨버틴으로 옵니다. 그동안 서로의 상처로 침체 속에 있던 앨버틴 베델교회가 치유되며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깊은 감동을 주는 복음 메시지에 많은 탕자들이 돌아옵니다. 감성을 터치하며 삶의 변화를 주는 메시지는 테이블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손인식 목사를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베델교회는 양적 성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베델교회는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동족 구원을 위한 제사장 교회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교회성장 실험교실을 통해 많은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비전을 나눕니다. 손인식 목사는 이민 목회자의 어려움을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화시킨 승리의 길을 보여주며 많은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도전케하는 멘토였습니다.

1990년 40대 초반의 한 목사가 동부에서 서부 앨버틴으로 옵니다. 그동안 서로의 상처로 침체 속에 있던 앨버틴 베델교회가 치유되며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깊은 감동을 주는 복음 메시지에 많은 탕자들이 돌아옵니다. 감성을 터치하며 삶의 변화를 주는 메시지는 테이블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손인식 목사를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베델교회는 양적 성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베델교회는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동족 구원을 위한 제사장 교회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교회성장 실험교실을 통해 많은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비전을 나눕니다. 손인식 목사는 이민 목회자의 어려움을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화시킨 승리의 길을 보여주며 많은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도전케하는 멘토였습니다.

1990년 40대 초반의 한 목사가 동부에서 서부 앨버틴으로 옵니다. 그동안 서로의 상처로 침체 속에 있던 앨버틴 베델교회가 치유되며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깊은 감동을 주는 복음 메시지에 많은 탕자들이 돌아옵니다. 감성을 터치하며 삶의 변화를 주는 메시지는 테이블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손인식 목사를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베델교회는 양적 성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베델교회는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동족 구원을 위한 제사장 교회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교회성장 실험교실을 통해 많은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비전을 나눕니다. 손인식 목사는 이민 목회자의 어려움을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화시킨 승리의 길을 보여주며 많은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도전케하는 멘토였습니다.

1990년 40대 초반의 한 목사가 동부에서 서부 앨버틴으로 옵니다. 그동안 서로의 상처로 침체 속에 있던 앨버틴 베델교회가 치유되며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깊은 감동을 주는 복음 메시지에 많은 탕자들이 돌아옵니다. 감성을 터치하며 삶의 변화를 주는 메시지는 테이블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손인식 목사를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베델교회는 양적 성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베델교회는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동족 구원을 위한 제사장 교회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교회성장 실험교실을 통해 많은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비전을 나눕니다. 손인식 목사는 이민 목회자의 어려움을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화시킨 승리의 길을 보여주며 많은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도전케하는 멘토였습니다.

자유 평화 통일위해 혼신의 힘 쏟으셨다



김경진 목사 (기쁜우리교회 담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3)

이 성경 말씀은 손인식 목사님을 소천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목사님은 세상을 비추는 궁창의 빛이요 우리의 마음에 별 같이 영원히 빛나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호탕한 웃음과 인자한 눈길, 부드러운 음성과 유머 넘치는 말씀,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는 따뜻한 가슴은 힘들고 지친 후배 목회자들이 기대고 싶은 큰 나무 같은 분이셨지요. 목사님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 어느 하나도 부족함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큰 그림으로 그리면서도 하나하나 챙기시는 섬세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와 한민족을 마음에 담으면서도 한 생명을 한 생명을 귀하게 불렀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 집회와 통곡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눈가에 고이는 눈물과 울컥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천생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했던 과거와 목회의 어려웠던 순간들도 투명하게 겸손히 나누는 목사님은 진정 맑고 싶은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부러울 만큼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심니다. 목회자 세미나 강의 중 찬송가를 부를 때 한 번은 반주자가 준비되지 않아서 당신께서 즉석에서 찬송가를 반주하는 멋있는 모습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결코 녹록지 않는 이민 목회에도 늘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누구도 따르기 힘든 목사님의 열정과 추진력은 지금의 베델교회와 세계 선교 그리고 특히 그날까지 선교연합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힘을 위한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민족을 위한 사명에 자신을 불태우기 원하셨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민족의 염원이며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평화통일을 위해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혼신의 힘을 쏟아부으신 분이셨습니다. 늘 목사님은 “저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슬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우리 목사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쓰시고 먼저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서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뵈옵니다. 목사님! 세월이 흘러가면 잊어진다고 하지만 목사님의 모습과 자신 그 길과 자취는 우리들 마음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뵈어요!

2004년 9월 27-28일 LA에서 목회자 1600명이 북한 동족 해방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눈물의 통곡기도는 천둥이 치는 듯 강력하여 참석 한 스스로들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상원에 계류되어 있던 북한 인권법안이 대회 중인 이튿날에 통과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북한 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통곡기도운동의 불길

2004년 9월 27-28일 LA에서 목회자 1600명이 북한 동족 해방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눈물의 통곡기도는 천둥이 치는 듯 강력하여 참석 한 스스로들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상원에 계류되어 있던 북한 인권법안이 대회 중인 이튿날에 통과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북한 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통곡기도운동의 불길

2004년 9월 27-28일 LA에서 목회자 1600명이 북한 동족 해방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눈물의 통곡기도는 천둥이 치는 듯 강력하여 참석 한 스스로들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상원에 계류되어 있던 북한 인권법안이 대회 중인 이튿날에 통과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북한 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통곡기도운동의 불길

2004년 9월 27-28일 LA에서 목회자 1600명이 북한 동족 해방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눈물의 통곡기도는 천둥이 치는 듯 강력하여 참석 한 스스로들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상원에 계류되어 있던 북한 인권법안이 대회 중인 이튿날에 통과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북한 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통곡기도운동의 불길

2004년 9월 27-28일 LA에서 목회자 1600명이 북한 동족 해방과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눈물의 통곡기도는 천둥이 치는 듯 강력하여 참석 한 스스로들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상원에 계류되어 있던 북한 인권법안이 대회 중인 이튿날에 통과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북한 동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통곡기도운동의 불길

Hyundai advertisement for a car. Text includes: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리 정", "213-276-8959", "email: usajyk@gmail.com".

Advertisement for David S. Lim, an immigration lawyer. Text includes: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51

“아름다운 은퇴 부부의 선교적 삶을 바라보며”

필자가 감사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섬기는 선교단체에 귀한 동역자들이 많은 것이다. 그들 중 한 부부가 평신도 선교 사역의 롤 모델이 되어서 소개하고 싶다.

이재혁 이사(가명)와 한소원 총무(가명)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 부부는 젊은 시절 남미로 이민을 가 사업을 하며 번성시켰고 이어 미국으로 이민 와서 동부 뉴욕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해왔다. 일찍이 비전스쿨을 통해 이슬람 선교를 경험하고 우리 선교단체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단체 이사과 사역 총무로 헌신하고 있다. 필자의 연배들이 이 이사님은 포용력과 온화함이 가득한 자상한 아버지상이다. 부인되는 한 총무는 빈틈없어 보이는 영적 자세에 압도된다. 선교 동원의 사명을 갖고 특히 다민족 교회를 깨워 선교적 교회로 안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부부가 다 기도 대상들이다.

이들은 60대에 사업을 정리하고 세상 일에서 은퇴를 하였다. 하나님 주신 선교 사명에 전념하기 위한 결단이였다. 오랜 기간 생활하던 뉴욕 지역의 집과 사업을 정리하고 정반대의 지역인 남가주 토렌스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것이 3년 전이다. 그들은 은퇴를 하고, 부부가 기도하며 선교 계획을 세웠다. 먼저 사부로 와서 두 내외가 살며 선교사들을 섬길 선교센터 개념의 주택을 구입했다. 그 후 5개월은 미주에서 선교 동원과 비전스쿨 그리고 전도사역에 집중한다. 거의 매일 다민족 교회를 찾아 목사 및 리더십들과 교제하며 선교비전을 나누고 관심이 있는 교회에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함께 예배도 드린다. 그들의 방문 사역을 통해 토렌스에만도 필리핀 교회, 이집트 교회, 중국 교회, 일본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선교비전을 같이 나누고 선교훈련을 받고 단기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로 변화된 교회들이 많다.

그렇게 5개월을 보낸 후 2개월은 두 내외가 열방으로 나가 비전스쿨 훈련을 받고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팀들과 합류한다. 단기선교 후 또 열방의 현장 기도 사역의 리더십으로서 많은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부부가 2개월을 열방에서 보내고 또 다른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5개월은 그들이 입양한 나라인 베트남으로 간다. 은퇴 후 베트남에도 그들이 지내는 주택을 마련해 두고 영혼구원 사역에 전념한다. 현지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사역을 도우며 베트남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전도와 선교동원을 한다. 베트남 대학가의 캠퍼스나 근처 카페 등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 대화하며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베트남의 청년들은 소위 영적 어장임을 그들은 증언한다. 그렇게 전도한 청년들을 현지 선교사들의 교회에 안내하고 교회 개척에 힘을 쏟는다.

그들은 다민족들을 섬기기 위해 토렌스로 이사 와서 다민족 교회를 등록하여 섬기고 있다. 그들을 만난 다민족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믿음과 선교 열정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방을 품은 자세들을 접하며 그들의 선교적 삶을 매우 경탄해 마지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된다. 성도들의 신앙의 질이 높아진다. 기도의 열심이 생기고, 예배의 뜨거움이 더하여진다. 분명 한인 1세대이면서 다민족과 대화하고 영어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과 사림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언어를 구사한다. 필자는 그것이 선교 부흥을 위한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알고 필자의 게으름으로 많이 부끄러웠다.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섬기는 선교단체의 평신도 젊은 사역자들에게는 닮고 싶은 롤 모델이다. 세상사업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은퇴 후 더 열심히 선교일 감당하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서 출가시키고 부부는 믿음의 의기가 투합하여 선교적 삶으로 노년의 인생을 누구보다 값지게 살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분들과 선교 동역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1) 실패

실패에서 배워라!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를 숨기지 말고 인정하며, 실패의 과정을 분석하여 승리를 위한 씨앗으로 삼기 위해 실패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성장의 이면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실패가 너무 아파서 실패를 직시하기보다는, 그냥 덮어버려 합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집니다.

일본 사회에 처음으로 ‘실패학’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사람은 하타무라 요타로 동경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실패학을 ‘성공하지 못한 방법인 실패를 배움으로써 실패의 경험을 살리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실패학은 실패를 활용하는 것이고, 실패의 교훈을 찾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실패학은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타무라 요타로는 실패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창의적인 연구와 실천 속에 다가온 ‘좋은 실패’가 있고, 배울 것이 없는 단순한 부주의나 오판 때문에 반복되는 ‘나쁜 실패’입니다.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나쁜 실패’는 막아야 하지만, ‘좋은 실패’는 오히려 장려해야 할 창조적 씨앗이라고 주장합니다. 좋은 실패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창조의 밑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실패’에 대해 격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스스로 긍정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패 속에서 부정적인 자아로 빠져들지 말고, 실패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연한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교훈을 깨달아 ‘좋은 실패’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실패 속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실패는 좋은 실패가 됩니다.

실패학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이미 ‘경험했던 실패’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사후 분석입니다. 과거 실패 분석은 노키아, 코닥, 모토로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업은 현재의 영광과 성과에 취해 새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서 도태된 경우입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이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장차 ‘예상되는 실패’를 미리 연구하는 것입니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예상되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실패를 막고자 하는 실패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실패 가능성이 있는 데도 미리 실패의 방향과 크기를 예측한 뒤 도전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시간주 앤아버에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실패 박물관(New product works)입니다. 실패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버트 맥메스가 40여 년에 걸친 연구와 자료 수집을 통해 7만여 점의 실패 사례들을 모아서 전시하였습니다. ‘연기 안 나는 담배’는 대표적인 실패 발명사례입니다. 흡연자들이 연기를 바라보는 기쁨을 미

쳐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에디슨 발명의 최종 성공 사례들에 열광하지만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그의 말처럼 교육도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실패 속에는 성공의 씨앗이 품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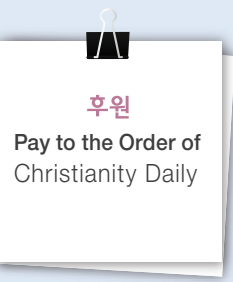
이 시설의 창립자 로버트 맥메스(Robert McMath)는 1960년대 말부터 해마다 나오는 신제품을 ‘취미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집하는 신제품의 80% 이상이 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진열대는 신제품 진열대가 아닌, ‘망해버린’ 신제품 집합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제품을 수집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1990년, New Product Works라는 이름의 박물관을 만들어 자신의 수집품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기업인 혼다는 한 해 동안 가장 크게 실패한 연구원에게 독특한 시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올해의 실패왕’상과 함께 약 1000만 원가량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모바일 게임회사인 슈퍼셀 역시 실패한 팀이나 사람에게 “실패 축하 파티”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조직원의 실패는 곧, 다음의 실수를 막는 방어책이자, 용기 있는 도전의 결과며, 소중한 교훈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도전 길에서 복병을 만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 비결입니다. 실패의 교훈을 정리해서 다음 도전에서 활용한다면 당신은 지금 성공을 향해 성큼 나아간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2020 - 2021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3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Categories: i)General ii)PK & MK iii)Seminary

선발 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2020년 3월 15일 ~ 4월 26일
- 선발 결과 발표: 2020년 7월 12일 예정
- 장학금 수여식: 2020년 8월 중순 예정 (추후 발표)

선발 인원 00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0@joyfulccc.org로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ATTN: Scholarship Committee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P.O. Box 270, Glendale, CA 91209

중세 '흑사병'은 하나님의 징계였을까?(2)

[특별기고] 백석대 명예교수 이상규 박사 '흑사병이 유럽 사회에 끼친 변화들'

3. 질병에 대한 이해: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였을까?

이 병의 증세나 감염 경로, 확산의 원인 등의 문제는 의학적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주제이겠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이 질병이 어떻게 그토록 급속도로 확산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 당시 교회는 어떻게 인식했는가의 문제이다.

질병의 확산과 질병에 대한 인식은 무관하지 않다. 질병에 대한 인식이 확산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병의 확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의학적이거나 역학(疫學) 외적 요인이 더 컸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종교적 이유였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14세기 유럽인들은 자기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질병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했지만, 질병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인식이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이 페스트가 전능자가 내리는 시련이며,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한 징벌 혹은 보복이라고 믿었다. 14세기에는 연옥설이 유포되고 있었고, 단테의 '신곡'을 통해 연옥과 지옥의 생생한 모습을 연상하고 있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은 지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사후에도 누군가의 중재로 연옥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 질병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체념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인데, 누가 감히 이 징계를 거역하거나 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고, 죽더라도 단지 사죄의 은총을 기대했을 뿐이다.

이런 종교적 태도가 병에 대한 저항 의지를 앗아갔던 것이다. 이른바 '성년의 해'에 1백만 넘는 이들이 위함을 무릅쓰고 로마로의 순례 여정에 동참한 것은, 병으로부터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사면을 원했기 때문이다.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등식의 기계적 인식이 결과적으로 이 병의 확산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래서 필립 지글러(Philip Ziegler)는 그의 책 '흑사병(The Black Death)'에서 "역병이 확산되는데 있어, 이런 종교적 신념보다 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은



중세 흑사병을 표현한 그림.

없다"고 썼을 정도였다.

이와 함께 유럽인들은 거둔된 흉작과 인구 증가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고, 영양 부족으로 병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흑사병이 유럽에 도래했을 때 저항할 힘조차 없는 이들이 병을 맞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가져온 또 다른 결과가 '자의적 보상 행위' 그리고 '채찍질 고행단'의 출현이었다.

사람자가 늘어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설사 죽더라도 천국의 보상을 갈망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교회에 바치므로 보상과 위안을 얻고자 했다. 미리 알아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침으로서 징계로부터 보상받고자 한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이 고행(苦行)이었다. 이 질병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 여긴 이들은 자기 몸에 채찍질을 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려 한 것이다. 이 또한 일종의 보상 심리였다.

이들은 최소한 낮에 두 번, 밤에 한 번씩 자신의 옷을 벗고 자신의 몸에 채찍을 가했다. 하나님의 징계에 앞서 스스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들이 '채찍질 고행단'인데, 흑사병이 유행하는 기간 그 수행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약 8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헤르포르트는 이렇게 썼다.

"채찍은 일종의 막대기였으며, 커다란 매듭이 있는 세 개의 줄이 달려 있었다. 매듭에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쇠붙이로 된 징이 박혀 있었는데, 그 길이가 밀의 낱알

정도였다. 그들은 이러한 채찍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때렸다. 그 결과 몸이 부어오르고 시퍼래졌으며 피가 땅에 흐르면서 이런 일이 행해지는 교회 벽에까지 튀었다. 그들이 너무 세게 채찍질하는 바람에 징이 살에 막혀서 렌치로 빼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Henry of Herford, Liber de rebus memorabilioribus, 281)."

영국의 레프(G. Lef)는 '중세의 이단(Heresy in the Middle Ages)'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채찍질 의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방법 중의 하나였다"고 썼다. 그러나 채찍질 의식도 심리적 효과는 있었으나 이 질병으로부터 기인하는 고통을 감소시켜주지 못했다.

문제는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기계적 인식이었다.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자 운행자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기 쉽다. 그 결과 몸과 육체를 관리하지 못한 인간의 책임과, 질병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간과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행운의 부적이 유행하기도 했고, 그리스도 상(像), 마리아 상, 성구함 등이 역시 인기 있는 '액막이용'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주술을 행하기도 하고 미신을 따르기도 했고, 가짜 의약품이 활개 치기도 했으며, 향수나 식초를 몸에 바르기도 했지만, 그것이 고통을 완화시켜 주거나 역병을 막아내지 못했다.

4. 유럽에 남긴 변화들

14세기 흑사병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질병이 유럽 사회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가를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흑사병의 시작도 불분명했지만, 병의 쇠퇴도 분명치 않았다. 엄청난 전쟁을 치른 뒤 이 병의 위세가 서서히 감소되더니, 유럽의 폐허 위에 고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역병이 가져온 후유증은 금방 사라지지 않았다.

약 2년 반 만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 그것이 남긴 사회적 변화는 가히 혁명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과 비교하기도 한다.

인구가 감소하자 자연히 인건비가 상승했고, 부와 권력을 누리던 지주들은 파산했으며, 중세의 특징이던 봉건주의도 붕괴됐다. 정치나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변화가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프랑스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나, 많은 프랑스어 교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영어가 서서히 지배적 언어로 대치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라틴어는 서서히 소멸

되었다. 이것은 자국어 발전의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영국에서의 국제어의 약화는 보편 교회론의 기둥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왔다. 약간의 과장이기는 하지만, 영국이 계속 프랑스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글을 썼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주장에도 일말의 진실은 있다고 하겠다.

예술 분야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흑사병을 경험하면서 고통 받는 이들과 질병 받는 이들, 그리스도의 수난, 지옥의 고문 등 고통과 죽음은 예술작품의 주제가 되었고, 해골과 시체가 주로 등장하는 '죽음의 무도'라는 장르가 발전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성당에 그려져 있는 오르카냐(Orcagna)의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이었다. 앞날을 헤아릴 수 없었던 생존자들은 자신도 언제 죽음으로 다가서게 될지 알지 못하자, 도덕적 삶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충격적일 정도로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금욕이나 절약은 무의미했다. 술 취한 매춘부들도 자기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방자하게 행해도 탓하지 않았고, "먹고 마시자. 내일 우리는 죽을 테니까"라고 자포자기하게 된다. 기다릴 미래가 없었던 중세인들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흑사병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광범위했다.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사회와 경제의 유동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자본주의의 태동을 알리는 전주였다.

더 큰 변화는 교회 내부의 변화였다. 프랑스 역사가 자클린 브로슬레에 의하면 성직 지원자의 격감으로 무식하고 무지한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는 "이런 무지가 교회를 더욱 타락하게 하여 결국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썼다.

인간 역사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자연 재해였다는 주장은 사실이다.(끝)



백석대 명예교수 이상규 박사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sec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HYUNDAI Spring sales event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SPRING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88** +Tax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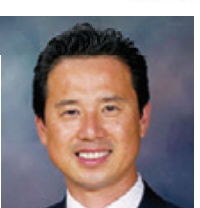
PAUL KIM
714.331.3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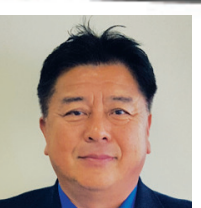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코로나19사태...장애인 향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준비한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 선물가방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생필품 가방을 전달하는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목사

남가주 밀알선교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 실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장애인들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면서 봉사자들의 도움도 줄어든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한 가까운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식료품과 생필품 지원에 나섰다.

밀알선교단 봉사자들이 정성껏 포장한 손가방 안에는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쌀을 비롯해 라면, 과일, 스낵, 김,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마스크 등이 가득하다. 생필품 구입은 남가주 지역 교회와 개인,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밀알선교단은 지난주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장애인 가정에 1차로 생필품 전달을 마쳤고 '밀알사랑나누기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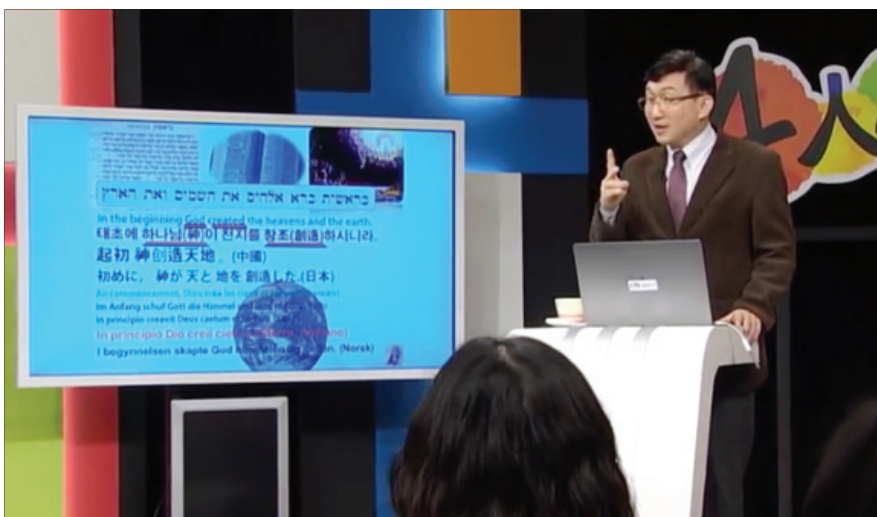
를 남가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희 목사는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줄어들어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이 더욱 소외당하거나 고통받지 않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이목사는 또 “장애인들은 온라인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라 여러 교회와 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교회와 단체에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전할 길 원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은 온라인 송금 서비스 앱인 'Venmo'를 이용해 후원할 수 있다. (남가주밀알 Venmo ID: @Milal-Mission-SCA) 김동욱 기자 문의의 562-229-0001

CTS 아메리카, 스튜디오 개방해 작은교회 예배 돕는다



CTS에서 설교 특강을 진행중인 김명현 박사

CTS 아메리카(대표 백승국)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인교회들을 돕는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정부 명령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남가주 한인교회들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지침에 많은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특히 미디어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교회들은 영상 예배 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CTS 아메리카는 자체 영상 예배가 어려운 교회들에게 무료로 방송국 스튜디오를 개방하고 설교 녹화를 진행, 온

라인 용으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일을 제공하기로 했다.

CTS 아메리카 백승국 대표는 “이번 온라인 예배 녹화 지원이 남가주 교회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남가주의 모든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예배 녹화 지원은 정상적인 예배가 가능할 때까지 계속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녹화 신청은 이메일 (bong@cts.tv)로 소속 교회와 교단, 담임목사 프로필,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면 된다.

문의) 1-800-700-0191 김동욱 기자

교회혁신교회

- LA 지역**
-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암회침 손준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2인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언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len 교차)
T. (213)386-2233
-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단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쪽출구 뒤)
-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복이 되자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셋에예배(분당) (소매점)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 LA 동부, 라스베가스
-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dchurch.com
-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 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조준민 담임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도회(마)지(미)주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코로나19로 중단된 교육,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온라인 원격 교육 돋보여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전원 미국 우수 대학 합격, 평균 SAT 점수 1400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휴교에 들 어간 미국 내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교육 시스템 부재로 교육에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학제로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새언약 초중고등학교(교장 제이슨 송, 이하 NCA)의 활약이 돋보인다.

NCA가 13년 전부터 구축한 온라인/전자 교재 및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시스템은 코로나 사태에 더욱 빛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부터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학사를 운영해 온 NCA는 기존의 교사-학생-교실 모델의 수업에 온라인 교재와 LMS를 접목해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 이미 학교에선 학생이 컴퓨터나 태블릿, 또는 핸드폰으로 교재 Access 및 커뮤니케이션, 과제 제출, 시험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 놓았고, 학생들은 이 시스템에 익숙하다.

2003년부터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정식 학교 인준을 받은 NCA는 10년 전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고도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준받았다.

NCA의 원격 온라인 교육은 지금까지 해외 거주 선교사 자녀 및 등교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만 제공되었지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에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이슨 송 교장은 "작은 기독교학교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육 리더십과 학생중

심의 학교 운영방침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극복하게 해주고 있다"며 "교사, 학생, 부모로 형성된 NCA 커뮤니티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NAC는 올해에도 졸업생 전원이 UC 계열 대학을 비롯해 예일대, 프린스턴, 조지아 텍, 코넬대, 페퍼다인 등 미국 우수 대학에 합격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졸업반 평균 SAT 점수는 1400점 선이다.

아래 대학은 올해 NCA 졸업생 입학 예정 대학이다. (3월 27일 현재)

American U, Amherst College, Azusa Pacific U, Boston College, Boston U, Brown U, Cal Poly Pomona, Cal Poly San Luis, Obispo, Chapman U, Columbia U, Cornell U, CSU Fullerton, CSU Long Beach, CSU Los Angeles, CSU Northridge, Denison U, Drexel U, Fordham U, George Washington U, Georgia Tech, Haverford College, Howard U, King's College (NY) Loyola Marymount U, Manhattan College, Menlo College, Pepperdine U, Princeton U, San Diego State U, Seton Hall U, Spelman College, Syracuse U, UC Berkeley, UC Davis, UC Irvine, UC Riverside, UC San Diego, UC Santa Barbara, UC Santa Cruz, UCLA, United States Naval Academy, U of Notre Dame, U of Pennsylvania, U of Rhode Island, U of San Diego, U of San Francisco, U of the Pacific, USC, Washington U in St. Louis, Wheaton College, Whittier College, Williams College, Yale U.

김동욱 기자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학교 주일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JCOCC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헌악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날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광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블리제들 MP제들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성경공부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주일성경회 목회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588 Alto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5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오후 5:30 / 토 오전 6:00
T. (818)936-5867 T. (818) 937-5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중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쁘고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이동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강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트럼프, 코로나19 사태에 700여 목회자들에게 기도 요청



기도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유튜브 영상 캡처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믿어”

미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 중인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상으로 진행되는 기도회에 참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5일 보도했다.

미국 보수주의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가 주최한 이 기도회는, 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FRC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목회자들에게 “경제에 있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잘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모든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 나라와 아픈 자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한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매우 영감을 주

는 사람들이다. 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을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해 온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이들과 소통해 왔으며, 거대한 지지를 받아왔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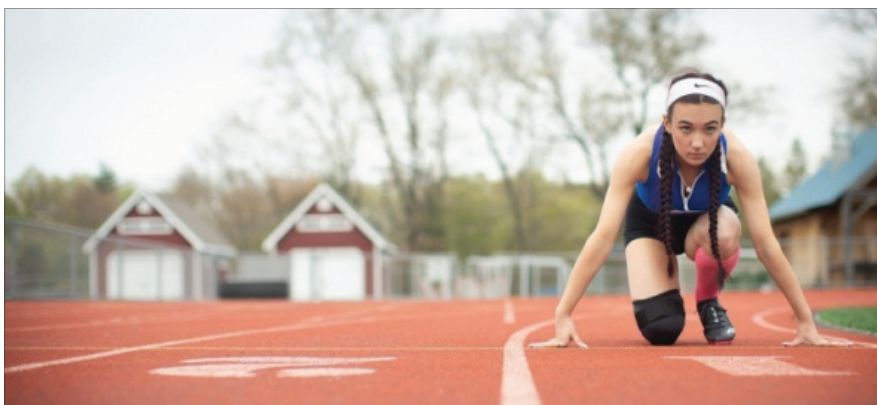
이어 “지금과 같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기에 어떤 기도를 가장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는 “미국의 ‘건강’과 ‘힘’을 위해 기도해 달라”면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왔다. 어느 날 끝이 났다. 그렇게 됐다. 오는 11월 3일 올바른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도회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함께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주 기도회가 있다고 대통령께 전달했을 때, 그는 꼭 찬 스키텔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 기도는 대통령에게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에 감사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진 기자

美 법무부 “트랜스젠더 선수 여성 경기 출전 안된다”



셀리나 소울 선수 ©자유수호연맹(ADF)

코네티컷 주 교육당국 소송 여학생 3명 손 들어줘

미국 법무부가 생물학적 남성(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참가를 허락한 코네티컷 교육 당국을 고소한 여학생 3명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 법원에 올라온 ‘소울 대 코네티컷 학교연합’(Soule v. Connecticut Association of Schools)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코네티컷주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인 여자 육상 선수 셀리나 소울, 첼시 미첼, 알라나 스미스는 “교육 당국이 남성 생식기를 가진 선수들에게 여자 선수들과 경쟁하도록 허용해 여자 선수들이 경기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코네티컷 학교 협회-학교 간 체육 관장 위원회(Connecticut Interscholastic Athletic Conference·CIAC)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교육 당국의 방침은 1972년 여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타이틀 나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CIAC의 트랜스젠더 정책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타이틀 나인에 어긋나지 않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이틀 나인과 그 시행 규정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성별’(sex)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므로 CIAC의 트랜스젠더 정책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즉 타이틀 나인에 나타난 단어인 ‘sex’(성별)은 트랜스젠더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CIAC는 그간 타이틀 나인에 대해 성별이 분리된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타이틀 나인의 핵심 목적은 여성들이 학교에서 경기에 참여할 공평한 기회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성으로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 선수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이같은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여학생 3명을 대신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는 성명을 통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경기 범주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여학생의 경기 참가 기회를 박탈한다”고 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이후 코네티컷주 실내·외 단거리 경기에 출전해 총 15차례 우승한 테리 밀러와 알드리아 이어우드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해 왔으며,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고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철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병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초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철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으로 활로 살라는 생애공제 사신. EBSIS 복음의 모교는 복음공제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생령 성령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마일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훈련 오전 9:30(금)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김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말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철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 오전 9:30 청년부 : 오후 2:00
2부 예배 :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 오전 9:30
English Ministry : 오전 11:30 금요 기도회 : 오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철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철년 영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철년 영어)

이서 담임목사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2020 LA, California
**목회자 및 사모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Conference
2020년 3월 9일-10일(월,화)
9일(월)저녁 7pm
10일(화)오전 10am-4pm
장소: 나눔과섬김교회
276 S. Rampart Bl. Los Angeles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회장: 이명희목사)**

회장: 이명희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목사
부회장: 조은혜목사, 윤에스터목사, 송정순목사, 김사라목사, 노정애목사, 서사라목사, 박예경목사, 조미나목사
총무: 조현숙목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아, 동남아 등)
목회자능력기도회 주강사
목회자 및 사모 영과영성, 주강사
펜실베이니아 Erie 장로교회 담임
KAPC소속 (남부노회 부노회장)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후원: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문의 562)896-3212 (에스더유전도사)
562)201-4184 (이명희목사)
714)222-1794 (박정희목사)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
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임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PM 2:00-4:00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PM 4:30-6:30

헨리김 선생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봄학기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3월16일 개강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하나님이 예배문을 단으신 거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지더니, 이제는 미국의 확진자가 중국을 따라잡고 1등이 되었습니다. 이런 1등은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모두가 예견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외출 자제 행정명령이 떨어진 상태이고,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기존 명령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골프장까지도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대면 서비스는 다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길도 한 가해서 요즘 같으면 엘에이 코리 아타운도 쉽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갈 일이 없고 부르는 이도 없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의 '3S'로 대변되는 미국 문화가 코로나바이러스로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장이 문을 닫았고, 영화관, 콘서트홀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술집과 클럽도 닫았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S, 서비스(예배)까지도 중단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즐기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쭐대던 3S를 못하게 된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 네 번째 S는 참 어렵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자발적으로 따라가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속에 진행되는 일이라면 3S는 이해가 되지만,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번은 성전 문을 닫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

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 1:10)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단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요즘 예배당 문이 닫혔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열린 예배" 한다며 문을 활짝 열던 우리들의 예배가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오면서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 먼 희생제물을...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말 1:7-8) 예배자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성전 문을 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성전문을 단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었어도,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도 닫지 않았던 예배당 문이 마침내 닫힌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목회하는 지금 이 시기에 온 세계의 예배당 문을 다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다시 예배의 문을 여는 날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예배 드릴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속히 수습되고 확진자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에 꼭 해야할 일 "부모님께 전화하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효된 가운데 각종 사업과 교회와 작은 모임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연로하신 시니어들이 아닌가 한다.

아파트 작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웃과 교제도 어렵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보낸다 하더라도 지루하고 외로운 데다가, 거의 매일 나가시던 양로 보전 센터마저 문을 닫으면서 그곳마저도 갈 수 없게 됐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시스템 사용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시니어는 나의 부모님 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하셨고 고통 가운데 낳으셔서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하셔서 오늘날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시다.

매일 부모님께 전화하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므로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부모님께 전화하기이다. 자녀의 목소리를 매일 듣는 부모는 삶은 활기가 있다. 내게도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 자녀가 있구나. 그리고 노인은 밤새 안면이란 우리 속담이 말하듯이 밤사이 평안한 밤을 보내셨는지를 확인하는 전화이다.

일주일에 한 번 모시고 식당에 식사 대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목소리를 들려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꼭 기도



김영찬 목사
효사랑 선교회

제목도 드려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신앙인의 삶으로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용돈을 드리면 더욱 좋지만 드리지 않아도 목소리 만으로도 행복해 하신다. 효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효도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언 23:25)

매일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부모님이나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약속의 계명을 주셨다. 부모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한다

는 말씀이다. 성경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선택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도록 하자! 내 목소리를 듣고 힘을 얻으시는 부모님을 기억하자! 놀랄 일이다. "좋아서 하시는 표현으로 바쁘게 무슨 전화냐? 나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나 잘 있고 내 걱정마라" 필요한 것 물으면 없다고 하신다. 그만큼 자녀의 목소리는 부모님에게 큰 힘과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서 모두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의 면역체계를 높여 주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께 목소리를 들려주어 기쁨과 감사로 면역을 높여 드려 바이러스가 열선도 못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사시도록 힘이 되어 드려라.

성경적 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효자요 효녀이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형제자매 우애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가정 나를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담임목사 청빙

달라스 베다니 장로 교회는 (1986년 설립) 복음연약 장로 교단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소속 교회로 복음전파와 다음세대로의 믿음 전승을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담임목사님의 은퇴(25년 시무)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청빙 자격 (자격 조건)

1. 장로교 및 개혁 신학교 M. Div 졸업자.
2. ECO 교단 소속 혹은 가입에 문제 없는 분.
3. 이중 언어 소통이 가능한 분. (한국어, 영어)
4.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분
5.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

제출 서류 (구비 서류)

1. 교회 소정 양식에 따른 이력서, 목회 계획서 (bethanydallas.org/담임목사청빙공고)
2. 학위증 사본 (대학교, 신학 대학원 M. Div. 최종 학력)
3. 목사 안수증 사본
4. 최근 설교 2편 (mp3 or youtube link)
5. 추천서 2부 이상 (추천인이 청빙위원회에 직접 email 혹은 우편 발송)
6. 자기 소개서, 사모님 자기 소개서

제출 기간

2020년 4월 30일 까지이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후 1차 대상자에게만 연락드립니다.

제출처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bethanync2020@gmail.com)
*문의 사항은 e-mail로만 문의해 주세요.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4020 Marchant Blvd, Carrollton TX 75010 Tel.972-395-9200
bethanydallas.org bethanync2020@gmail.com

The Cornerstone Community Church in Marina, CA, is looking for a Youth/EM pastor with a pioneering spirit to build a multi-ethnic community. Though the congregation is small in number, it is made up of dedicated adults and adolescents who are passionate about God and the church. CCC was planted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mkfpc.org) to provide Christian witness and service in the area.

1. RESPONSIBILITIES INCLUDE:

1. Lead Sunday worship, including preaching, and provide weekly Bible studies
2. Oversee administration of the Youth Ministry and Sunday School
3. Plan, execute, and evaluate ministry events/programs throughout the year
4. Coordinate EM ministry with Korean ministry's vision and goals

2. QUALIFICATIONS:

1. Master of Divinity or equivalent from an accredited seminary
2. Experience in Youth/English Ministry
3. Possess a strong calling to shepherd a young generation
4. Fluent in both spoken and written English (Korean is preferred)

3. APPLICATION REQUIREMENTS:

1. Resume including photo of self + family (if married)
2. Statement of philosophy and theology of ministry (one page)
3. Personal testimony: faith journey and the call into ministry (two pages)
4. Two sermons
5. Two ministry references with contact information

4. Salary & Benefits:

1. Salary range is \$45,000-55,000, depending on experience and family circumstances
2. Benefits are included with health insurance
3. Two weeks of paid time off per year (one week during first year), and one conferenc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per year

5. Interested applicants should email all application requirements to Rev. K. Rhee (woong101@gmail.com)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 (Salisbury)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PCUSA)는 2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 현재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 분
- 정규 신학교 이상 졸업하신 분
-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언어(한/영)에 불편이 없으신 분
- 목회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분 (담임목사, 부목사경력 포함)

제출서류

- 한글 이력서 1부(사진 포함)
- PCUSA MIF양식 (pcusa.org)
-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포함)
- 추천서 2부(목사 1명, 장로 1명)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2편(CD/DVD/USB 또는 동영상 링크 주소)
- 최근 3주간 주보
- 목회 비전과 신앙고백서
- 신학교 졸업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제 출 처

- 제출 마감일: 2020년 4월 18일(토)
- 보내실 곳: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장
Attn: Eld. Nakin Sung (성낙인 장로)
2420 N. Salisbury Blvd. #2, Salisbury, MD 21801

기 타

- 서류는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청빙위원장 성낙인 장로
Email: salisbury5183@gmail.com



231 North Division Street, Salisbury, MD 21801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학교
 교미로고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우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작성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패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자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옆구리 통증(협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불룩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위장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항플러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감작성,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뺨간고, 붉은 얼굴, 머리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볼록, 근중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쥐금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가와 아드모아)

전염병이 돌 때(1)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우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핵전쟁, 운석 충돌, 자연 총동, 빌 게이츠는 가장 큰 가능성으로 전염병을 들고 있습니다.

6세기에 일어난 전염병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0세기의 전염병은 단 2년 만에 세계 인구의 5%를 사망케 했다고 합니다. 1918년과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한국에도 무오년 독감으로 740만 명이 감염되어 14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었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이런 전염병을 막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3일 만에 70,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염병이 돌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대상 21:7)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괘씸히 여기셨습니까? 다윗의 교만입니다. 그가 가진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꺾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단 한순간에 꺾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다면 백성들 편에서 얼마든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삼하 24: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해 다윗을 감동시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살품의 난과 세바의 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을 대적했습니다. 암살품의 난에서 교훈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시 세바의 난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들의 악입니다. 북쪽 10 지파, 그들은 라헬의 자손이 아니었기에 라헬의 자손 유다와 베나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보다 혈연관계가 앞섰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에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 상, 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사무엘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바의 난 후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의 의미에는 세바의 난과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군사력을 정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군대의 힘을

동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통원하여 테러 조직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없는 전쟁을 수행할 결의를 다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4:16-17a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맡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도다.

용사의 힘도 아닙니다. 수많은 말과 병기가 아닙니다. 온 땅을 제패할 군사적 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기 보다는 자신의 힘을 근거로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의 전염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악함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됩니다. 우리가 원하면 법이 되는 세상입니다. 비타입 C 박사로 알려진 서울 의대 이왕재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치병을 앓던 사람들이, 혹은 장기를 이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거기서 장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를 보다 편하게 만들기 위해 소의 난자를 제거하여 사람의 핵을 집어넣은 후 소의 배속에서 자신과 똑같은 인간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종간 배아 접종이라 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영국 하원은 치료를 위한 이종간 배아 접종을 336대 176으로 합법화시켰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똑 같은 방법으로 동물 속에서 감기를 일으키던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 배열 사이에 끼어들며 병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사스, 메르스, 콜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이 한 일과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들이 심었던 대로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그 전염병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다윗을 통해 보여줍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1) 모든 죄를 도설하는 기도입니다. 2) 변명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3) 징계를 각오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재앙의 날이었지만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파괴와 성적 타락 등 많은 죄악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전염병처럼 퍼져갑니다. 교회와 교회들이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추한 모습으로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재앙의 자리가 우리가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용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오르난은 이스라엘에 불어사는 이방인입니다. 마치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한국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제에는 소제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을 멈출 수 있다면 다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은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재앙을 받은 다윗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귀한 것을 희생하여 제사 드리겠다고 합니다.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 (72Kg) 약 45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때 재앙이 회복되었습니다.

대하 3: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었으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찾으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옛적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라우나처럼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반제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로 돌려주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고 있던 다윗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보낸지도 알았습니다. 바로 전염병으로 무릎 꿇었던 이 자리가 후일에 우리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오르난 되게 하소서 (예배 /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게 하소서!(계속)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택선교
박상원 목사

“성철아, 너도 정 믿겠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믿지 마라. 재수 없게 지지분한 놈들한테 잡혀서 숨진 예수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니?”

그러자 성철이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말대꾸했다간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입으로만 우물거렸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드셨다. 성철이의 말처럼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면 왜 쥐새끼 같은 놈들에게 붙잡혀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다 말인가?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판에는 조선기도회를 책임지고 인도하던 지도자인데 도망자 신세에 불과한 성철이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느냐고 물어볼 수 없어서 성경책에 매달렸다. 그렇게 앉으나 서나 성경책에 매달리자, 성철이의 아내가 구약성경은 나중에 읽고 먼저 신약성경의 요한 복음부터 읽어 보라고 조심스럽게 귀뜸을 했다.

그렇게 읽게 된 요한복음은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찌르는 비수였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노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19-20).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내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어땠을까 싶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랐다.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3).

불법을 저지른 나는 지옥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오금이 저려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나를 지켜보던 산막의 동료들이 걱정이 되어 어디 아픈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나님은 나의 무수한 동료들을 통해 나의 악함을 지적하셨으나 나는 듣는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했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강권적으로 타국의 산막으로 끌어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구나.”

그때까지 들리지 않던 소리가 한꺼번에 내 가슴을 치며 요동을 치는데 한순간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지난날 어리석고 교만하여 악인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으니 나 같은 죄인이 또 있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독재자가 되기는 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전도자가 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때부터 나의 광야 훈련이 시작되었다.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시고 어리석고 교만한 성품을 만지셨으며 닫힌 귀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가셨다. 어찌나 무서운 기세로 성경을 읽었는지, 주위 사람들이 저러다 정신병자가 되는 게 아닐까 걱정할 정도였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자네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들은 북한에서 기도회를 조직하고 이끌었다는 자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의아해서 내게 도리어 물었다. (계속)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only \$15.99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전도 사역 위한 필생의 교훈

사도행전 26:8-29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도바울이 예베소에 살고 있는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을 통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하늘 소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드로비모라가 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쇠사슬로 결박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재판장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 전도에 대한 사명

전도사역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필생의 교훈으로 전도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사역을 위해 자기 생애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책감도 말할 수 없이 무거웠지만, 그보다도 죽은 줄 알았던 이단의 주동자 나사렛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바울에게 생생하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행 9:4-6)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일어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앞잡이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을 대적해 왔을지라도, 이제 이 시간부터 내가 너를 붙렸고, 내가 너를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내 종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고, 구속하고, 성령으로 무장시켜 세계선교를 위한 사역자로 너를 붙들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2. 예수님을 만난 체험

여러분도 구약 시대에 모세처럼, 신약시대에 바울처럼, 여러분의 목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기(轉機)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분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시고자 합

니다. 이렇게 주님께만 쓰임받기를 힘쓸 때, 오늘 제목인 '전도 사역 위한 필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당하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세우신 계획,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까지는 생명싸개로 싸서 지키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길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어 쓰시면서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 이론적인 것, 학술적인 것 보다,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집니다.

3. 복음의 제물로 헌신

바울은 몸이 작고 허약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눈도 좋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역사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아흔 여섯 살 쯤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기록

이 있습니다. 그가 소원했던 대로 순교한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다면 아주 향기로운 제물로 순교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은혜 보답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목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은 꼭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체험을 주셨으며, 어떤 능력과 사랑을 체험케 하셨는가를 증거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욕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여러 모양으로 모함을 당하고, 행패를 당하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복음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길리기아 수도로 가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다. 로마 황제에게 아버지가 청탁을 하면 크게 출세할 수도 있다.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고구라졌을 때, 지금까지 바울의 잘못 살았던 자기 인생은 거기서 끝장이 났던 것입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하셨을 때, 그 시간부터는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은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복음의 제물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를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통한 영적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 받은 결과는 오늘도 전 세계 오대양육대주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제물로 헌신하여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말 오후 10시30분	주말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증가된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헴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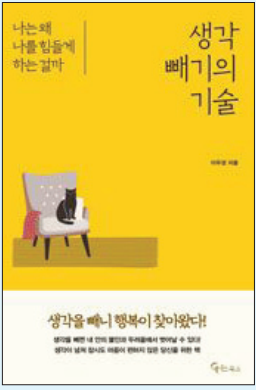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헴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부정적인 생각 줄이기

코로나19, 인간의 복잡한 생각보다 성령의 간결한 생각으로



생각 빼기의 기술 이우경 메이트북스 | 296쪽

복잡한 생각으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책!

“머릿속 생각을 빼니 행복이 찾아왔다!”

사는 게 힘든가요?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생각을 잘 관찰하면 복잡한 인생, 꼬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 빼기의 필요성을 안다고 생각을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친구 되기, 생각의 채널 바꾸기, 오감에 집중하기, 많이 웃기 등

생각을 빼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 원하는 삶보다 주어진 삶 살아가 원하는 것 선택하기, 노력 이상 용기 필요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이생망'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의 줄임말이다. 20대들 사이에 주로 쓰이는 자조적인 의미를 가진 유행어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삶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대부분 원하는 삶보다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배운 것이 없어서 혹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따라간다.

주어진 삶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은 노력 이상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하는 삶을 찾아 용기를 내는 사람을 볼 때 응원과 부러움이 함께 생긴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있다. '유산술'이다. '유산술'은 유재석의 다른 이름이다. 유재석은 우리가 아는 국민 MC다. 그의 직업은 예능인이다. 그런 그가 예능이 아닌 트로트 가수에 도전했다.

트로트는 유재석이 좋아하던 음악 장르였다. 유재석은 트로트 가수에 이어, 라면 요리사, '하프'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지난 오랜 방송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이 담겨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느끼는 남다른 쾌감은, 원하는 삶에 대해 풀지 못한 갈등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틀에 박힌 고정된 생각을 깬기 때문에 가능했다.

원하는 삶 살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꾸라

<생각 빼기의 기술>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꾸라고 이야기한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행동은 결국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생각 빼기의 기술>의 저자인 이우경은 심리학 박사이자 임상 심리 전문가이다. 13년간 임상 심리 경험으로, 생각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설명한다. 그녀는 생각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수심이 가득해 보인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신중하다고 생각한다. 하

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려 깊다기보다는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다. 반면 생각이 깊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해안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생각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생각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무작정 많이 한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생각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생각은 '양보다 질'이라고 설명한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과잉사고'라고 부른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뇌피로 증후군'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과잉사고자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피로도 빨리 느낀다.

"성인의 경우 뇌 무게는 몸 전체의 약 2%밖에 안 되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한다. 신경을 많이 쓰면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것도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서다. 그래서 뇌 활동을 줄이려면 생각을 줄여야 한다."

과잉사고는 육체의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가중시킨다.

"과잉사고는 대부분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삶의 경험 중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은 대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그 생각이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전혀 무관해 보이던 일들이 연결되면서 부정적인 기억들이 서로 연결된다."

부정적인 생각, 자기 생각 감히게 만들어 건강한 생각 위해 과거 아닌 현재 집중을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기 생각에 감히게 만든다. 자기 생각에 감힌 사람을 '끈대'라고 표현한다. 저자는 끈대는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요즘엔 끈대의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대학교 2학년생이 1학년생에게 훈계를 하거나 고등학교 2학년생이 1학년생에게 훈계를 하기도 한다.

끈대짓, 끈대식 사고는 생각이 노화된 것을 말한다. 자기가 이전에 한 경험에 근거한 생각만 고집한다. 그러면서 진부하고 말이 안 통하는 생각에 빠져 있다.

끈대 같은 생각으로 삶은 바뀌지 않는다. 건강한 생각이 삶을 바꾼다. 저자는 건강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심리학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지

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다. 마음이 우울하면 과거에 주로 머물고, 마음이 불안하면 미래로 가게 마련이다. 또한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두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한다."

저자는 지금에 집중하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한다. 수다를 떠는 것이다.

"수다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끔 만든다. 과거 이야기와 미래 이야기를 할지라도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현재와 조율해야 대화가 이루어진다. 수다를 떨면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만 있어도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지는 않을 것이다."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것은 유연하다는 말이다.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대화 상대가 없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수가!'가 아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수다도 가능하다. 저자는 이야기한다.

"건강하게 웃고 떠드는 모임을 한 두 개 갖자. 그러고는 크게 웃고 떠들어보자. 지금 현재 느끼는 만족감이 늘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행동을 바꾸는 시작점이 생각이다. 건강한 생각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건강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몇 년 전에는 '명 때리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오랫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다. 이런 기상천외한 대회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과잉사고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회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잘 안 풀리고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가 있다. 생각이 문제다.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면서 때론 힘에 부치는 느낌을 유발한다. 감정은 통제하기 어려워도 생각은 통제할 수 있다."

생각은 잘 다스리면 통제가 가능하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생각을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 빼기의 기술>은 총 6장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건강한 생각으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성령의 간결한 생각이 역사 바꿀 수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인지를 묻는다(행 1:6).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복잡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의 복잡한 생각보다 성령의 간결한 생각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환경이 힘들거나 어려워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좋은 소식보다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린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격정이나 고민으로 가득한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강한 생각이다.

건강한 생각이 삶을 바꾼다.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건강한 삶도 살아가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인생을 기대해본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눔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건강 보험료 부담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고 혜택은 골고루 받는 아주 괜찮은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주 벌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ltrua HealthShare

Table with 4 columns: 프로그램, Complete (컴플릿), Super(수퍼), Essential(에센셜). Rows include 1인, 2인, 3인, 본인부담금, 지원금, 지원내용.

한달에 \$165로 최고 1백만불까지 지원, 의사방문, 검진, 검사, 입원, 수술까지 해결!

- ☑ 의료비 신청 본인이 하지 않음
☑ 각 플랜: 응급실 사용 가능
☑ 한국 병원에서도 혜택
☑ 비 흡연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64세까지)
☑ 장례비 보조
☑ 그룹 플랜도 가능

·한인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인지원센터

Tel:(714)738-1234 Fax:(714)738-1238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email:info,primeh4@gmail.com

문의: 티나 정(tchong.prime@gmail.com) 그룹문의: 스티븐 정(schong.prime@gmail.com)

*Prime.ahs.family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 및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새 언약 초 중 고 등 학교

Presents the Class of 2020



Congratulations on your excellent college entrance results!

American U.

Amherst College

Azusa Pacific U.

Boston College

Boston U.

Brown U.

Cal Poly Pomona

Cal Poly San Luis Obispo

Chapman U.

Columbia U.

Cornell U.

CSU Fullerton

CSU Long Beach

CSU Los Angeles

CSU Northridge

Denison U.

Drexel U.

Fordham U.

George Washington U

Georgia Tech

Haverford College

Howard U.

Kings College (NY)

Loyola Marymount U

Manhattan College

Menlo College

Pepperdine U.

Princeton U.

San Diego State U

Seton Hall U.

Spelman College

Syracuse U.

UC Berkeley

UC Davis

UC Irvine

UC Riverside

UC San Diego

UC Santa Barbara

UC Santa Cruz

UCLA

U.S. Naval Academy

U. of Notre Dame

U. of Pennsylvania

U. of Rhode Island

U. of San Diego

U. of San Francisco

U. of the Pacific

USC

Washington U. in St.

Louis

Wheaton College

Whittier College

Williams College

Yale U.

☎ (213) 487-5437

🌐 www.e-nca.org

✉ info@e-nca.org

3119 We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